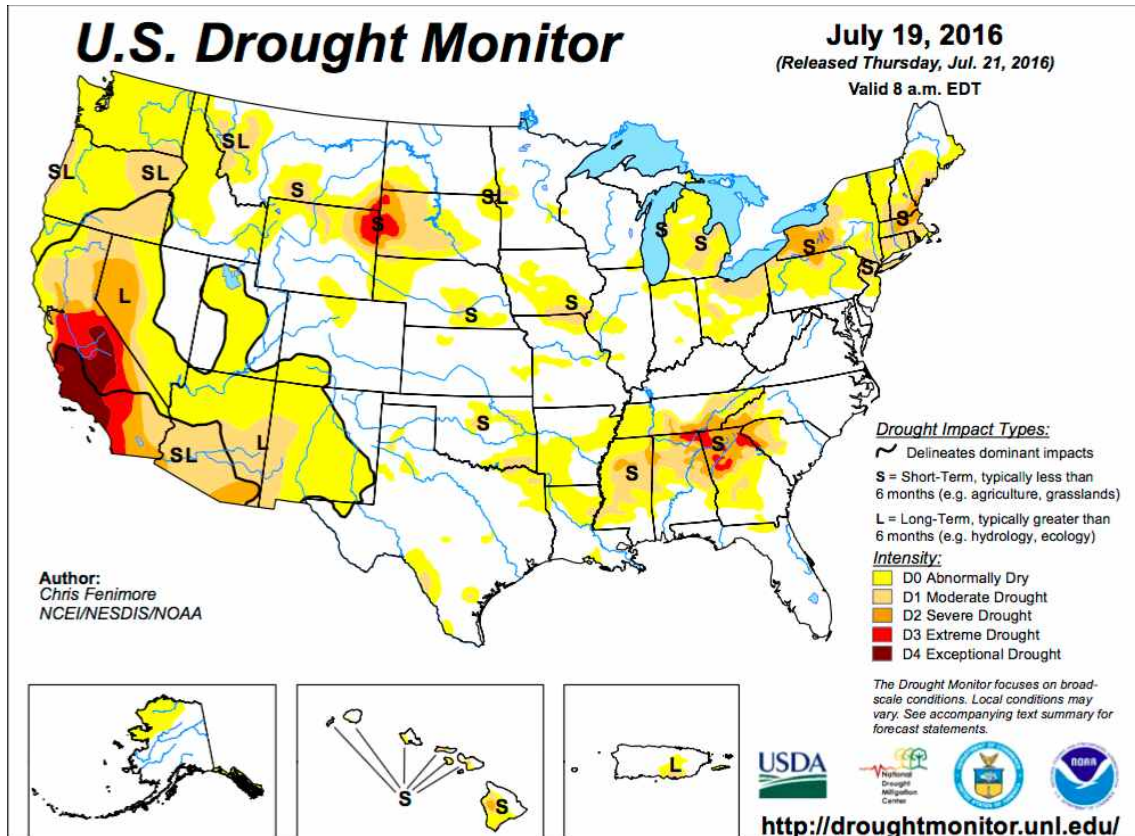


7월 2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30)

□ 미국 기후 현황(7/17~7/23)

중서부에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이번 비는 미시시피강 상류에 집중되었으며, 강우량은 2~4인치 내외를 기록했다. 중서부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남동부 일대에도 비가 내려 더위를 식혀주었다.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를 보였고, 남부와 중부에서는 일시적인 가뭄이 발생했으며, 서부에서는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였다. 남서부와 중부 및 로키산맥 남부, 대평원, 중서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최소 5°F 이상 높은 날이 이어졌다. 대평원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0°F까지 올랐고, 중서부에서도 기온이 95°F까지 올랐다. 이번 더위로 남부와 대평원 일대에서는 용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 □ 농업 현황 요약(7/18~7/24)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일부 지역에서는 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로키산맥에서부터 애팔래치아 산맥 사이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다. 미시시피강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이상 높았고, 북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다.

### ■ 옥수수

7월 24일 기준, Silking 단계가 끝난 지역은 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p 앞선 상황이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9%p 앞선 것이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silking 단계에 도달한 지역의 비율이 30%p 증가했다. 18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 dough 단계에 접어든 재배지 비율이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6%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6%p 높은 수준이다.

### ■ 대두

지난 7월 24일 기준, 전국적으로 76%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화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p 앞서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10%p 앞선 수치이다. 응답자의 71%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9%p 높은 수준이다.

### ■ 겨울밀

7월 24일 기준 수확률은 83%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앞서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4%p 높은 수준이다. 미시간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로 지난 한 주간 38%를 수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면화

7월 24일 기준 85%가 squaring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p 앞선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앞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46%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5%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3%p 앞서고 있다. 텍사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면화송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52%의 응답자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2%p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5%p 낮은 수준이다.

### ■ 쌀

7월 24일 기준 전체 재배지의 57%가 heading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9%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6%p 앞선 수치이다. 미주리와 미시시피강 인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비교



했을 때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2%p 낮은 수준이다.

## □ 세계 기후 현황(7/17~7/23)

■ 유럽: 서부 일대에서는 주 초반 매우 더운 날씨를 보였고, 동부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겨울작물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스페인에서는 기온이 35~40°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갔다. 이탈리아 북부와 발칸반도 일대 옥수수 재배지에서는 2~10mm 내외의 적은 비가 내렸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까지 올랐다. 북부 전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도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았고, 폴란드 등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다.

■ 구소련(서부): 주 초반 맑은 날씨를 보였으나 주 후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낮아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옥수수 및 해바라기 재배지에서는 지난 7월 18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40°C 가까이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러시아 남부 일대에서는 더운 날씨로 인해 옥수수 재배지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주 후반 10~80mm 내외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려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에서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주요 곡창지역인 Heilongjiang에서는 10mm 내외의 아주 적은 양의 비가 내렸고, 가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한달 간 누적 강우량은 25mm 미만으로 작물의 생육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Jilin 등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Liaoning에서는 50~1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려 일시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을 해소해 주었다. 보타 남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렸다. 양쯔강 중류 등에서도 비가 내렸다. 북한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한과 일본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 호주: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작물 생장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서부와 남동부의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도 25~50mm 내외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퀸즐랜드 남부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았고, 서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대체적으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농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Buenos Aires 남부 해안가에서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다. 북동부의 Entre Rio, Chaco, Formosa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이 평년에 비해 4°C 정도 낮았다. Buenos Aires 남부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 5°C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밀의 성장이 다소 늦어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7월 21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61%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84%에 비해 느린 편이다. 밀의 수확률은 81%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p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동부에서는 서리가 내리면서 커피와 사탕수수의 피해가 예상된다. Sao Paulo, Minas Gerais 남부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1~2°C까지 내려갔고, Rio Grande do Sul 북동부와 Parana남동부에서도 기온이 영하 3°C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를 보였다. 하지만 Parana 주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Parana 내 이모작 옥수수의 경우 추위에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북부에서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면화와 옥수수는 수확을 앞두고 있다.